

불확실성 시대의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공동인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

2017년 2월

불확실성 시대의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공동인식조사*

남지현 연구원 번역†

동아시아연구원

2017년 2월

개 요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역내 국가들은 보다 까다로운 안보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권 주장, 역내 주요 국가들의 영토 분쟁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지역 안보를 초래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기후변화, 테러리즘, 핵 확산을 포함하는 초국가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역내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은 국가의 이익과 국가가 직면한 도전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Lowy Institute(호주), 아시아태평양재단(캐나다), Dataway Horizon(중국), 겐론 NPO(일본), 동아시아연구원(한국)과 주요한 국제문제에 대한 지역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과 견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각 국가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화에 대한 관점과 상호 관심사 및 대립되는 견해를 이해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여론조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시행되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몇 주는 많은 논란이 일었으며 여론조사의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국가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각 국의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의의가 있다.

*EAI는 미국의 CCGA, 일본의 Genron NPO, 중국의 Dataway Horizon, 캐나다의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호주의 Lowy Institute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국민인식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상호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6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CGA가 발간한 영문 보고서를 국내 독자들을 위해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본 회의록은 EAI 인턴 Joseph F. Gaenzle과 Ryan Tanaka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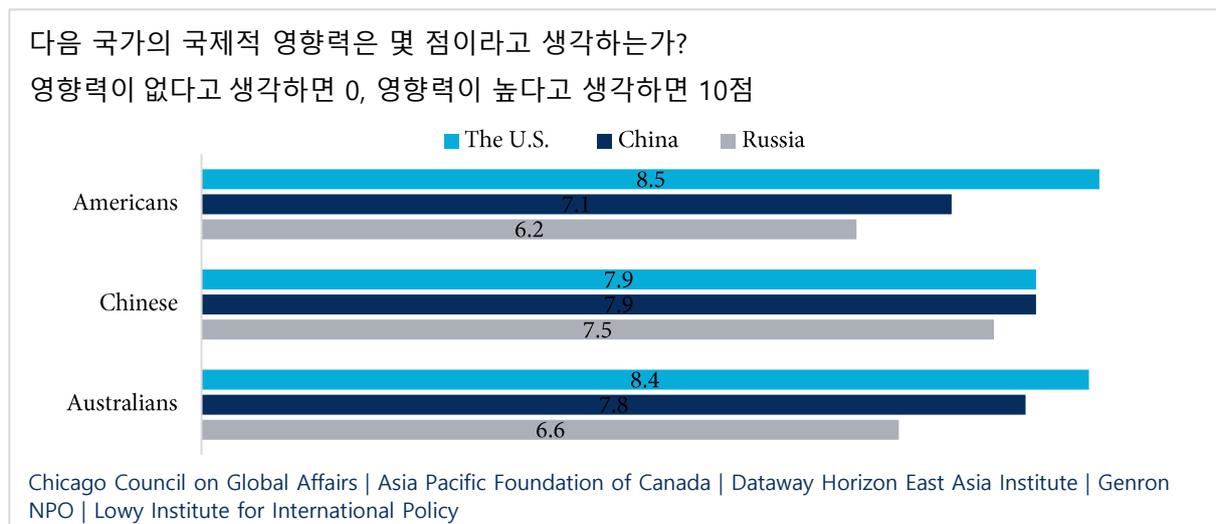
서론

2016년 아시아-태평양 공동인식조사는 주요한 국제문제에 대한 지역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과 견해를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테러리즘, 기후변화, 그리고 이민 문제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통된 인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안보 문제는 달랐다. 설문조사 결과, 아태지역 국가들은 역내 주요 안보문제에 대해 상당히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시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아태지역 내 산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016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 별로 다소 상이한 문항이 주어졌다. 설문지에는 참가국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 문항이 들어 있기도 했지만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문항도 첨부되었다. 조사 결과 개별 국가의 특수한 맥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태지역 정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국제 영향력

중국의 부상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각국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큰 파급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파급력을 인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자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역내 지역 정세 또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해 아태지역 내에서 미국의 지위가 불확실해지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파급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미국, 호주, 그리고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몇몇 국가의 국제 영향력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미국 및 호주 국민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라고 답하였다. 미국 국민들은 자국의 국제 영향력을 평균 8.5점(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고, 호주 국민들은 미국의 국제 영향력을 8.4점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중국 국민들은 중국과 미국 모두의 국제 영향력을 7.9점으로 매기는 등, 국제 영향력 측면에서 이 두 국가를 경쟁자로 인식하였다. 미국, 호주, 중국 국민들은 러시아를 가장 영향력이 낮은 국가로 평가하였고, 중국 국민들은 미국이나 호주 국민들에 비해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소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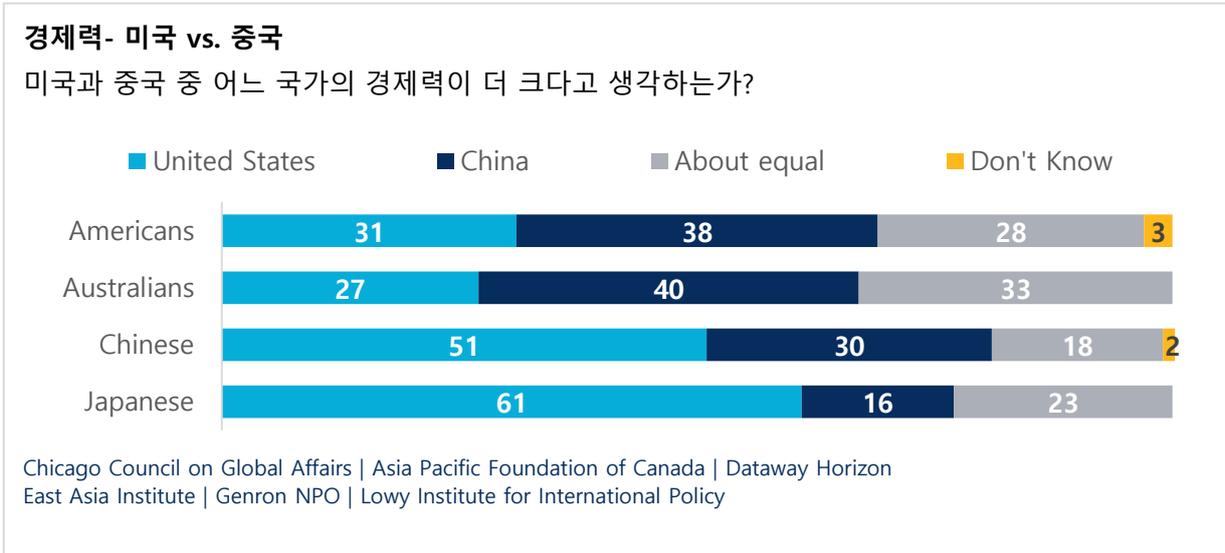


[그림 1] 국제 영향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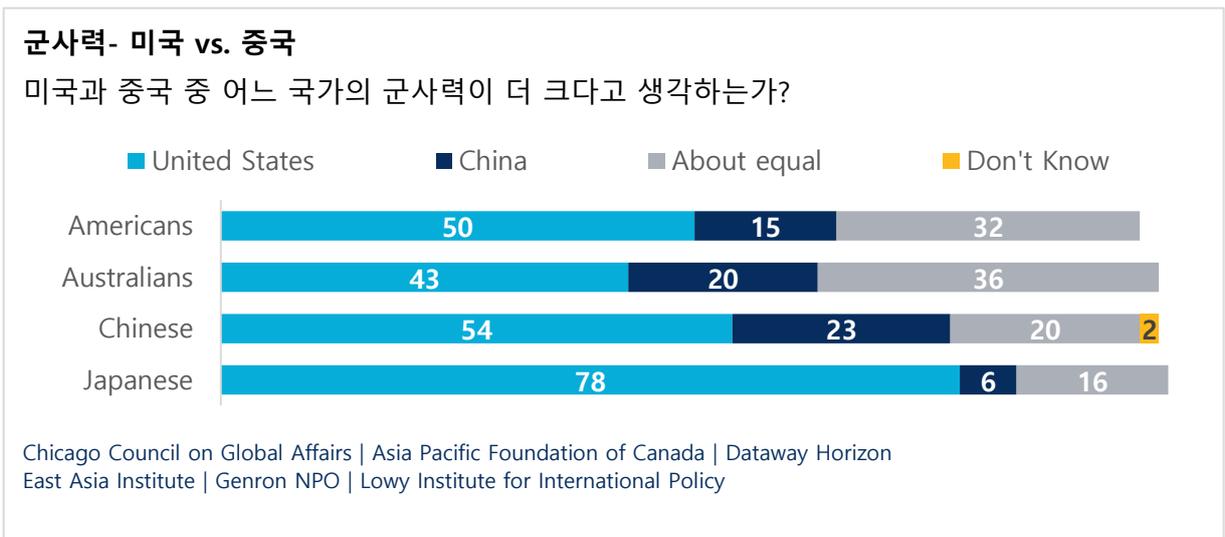
경제력: 미국 vs. 중국

중국이 지닌 국제 영향력의 핵심 요소는 막대한 경제력이다. 하지만 국력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확연한 차이를 노정한다. 중국(57%)과 일본(61%)의 응답자 중 상당수는 미국이 경제력 측면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응답자 대다수는 중국이 경제력 측면에서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2] 미중 경제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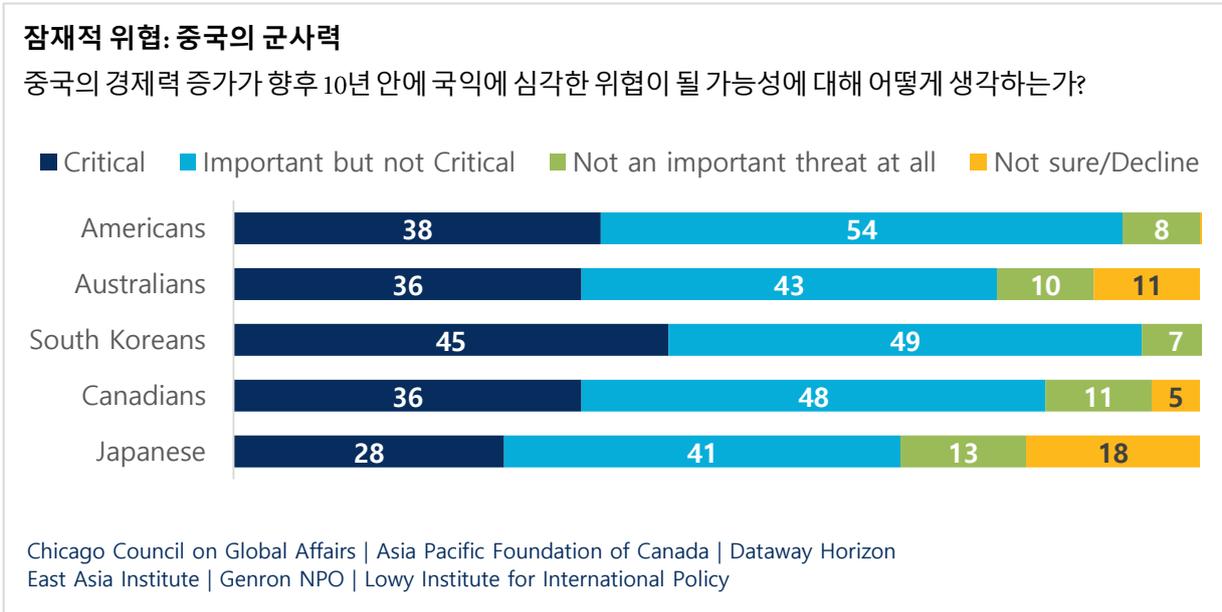
미국인들은 중국에 비해 자국의 경제력에 회의적인 반면, 군사력에 있어서는 보다 확연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미국 응답자의 절반(50%) 가량이 자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그것보다 막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54%)과 호주(43%)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거의 8할에 가까운 비율(78%)로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 3] 미중 군사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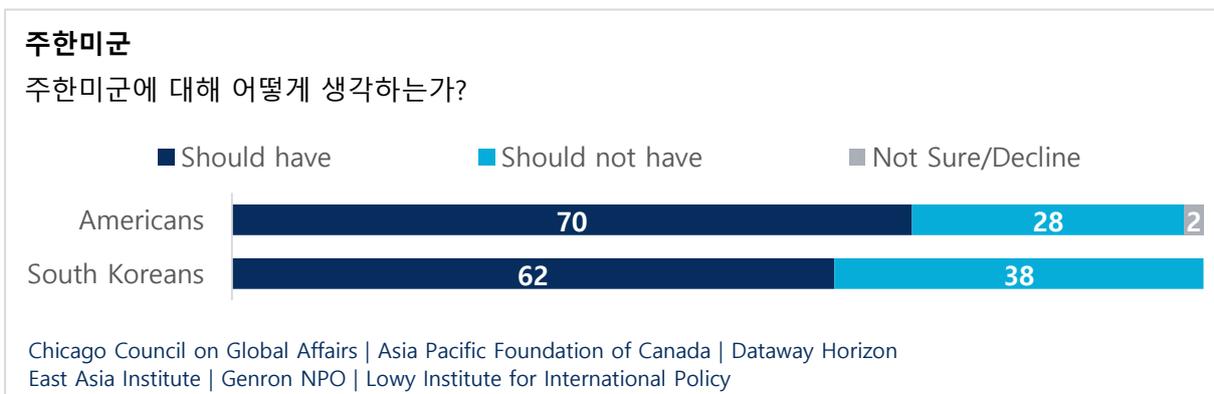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보는 견해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그렇게까지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은 45%의 비율로 중국의 군사력을 결정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의 경우 응답자의 1/3 가량이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잠재적 위협: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

역내 주둔 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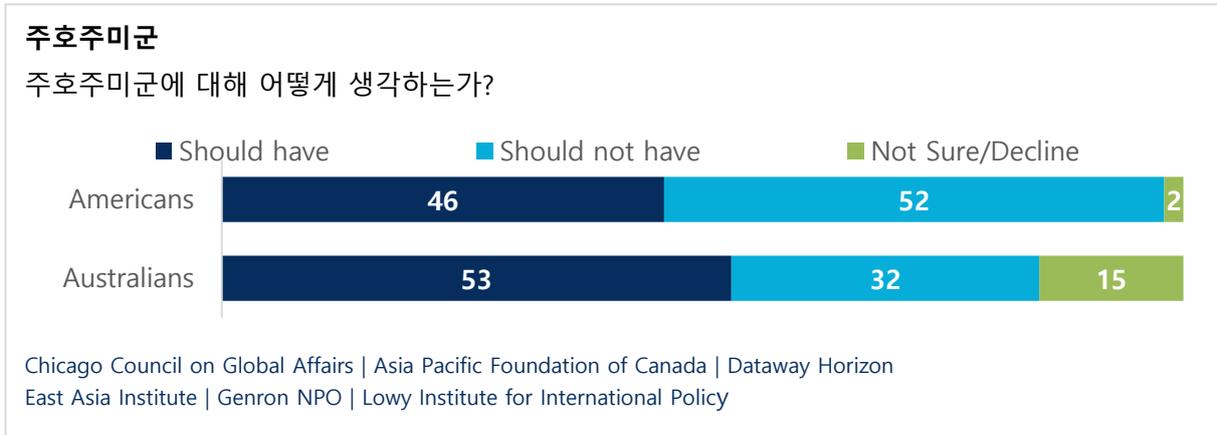
중국의 군사력을 결정적인 위협 요소로 느끼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아태지역 주둔 미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주둔 미군이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모두에서 이 문제는 국내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주둔 미군 문제에 대한 설문은 한국, 호주,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70%의 응답자가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한국도 62%의 비율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



주호주미군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에 비해 지지 비율이 낮다. 다소 특이하게, 주둔미군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쪽은 주둔 국가(이 경우에는 호주)가 아니라 군대를 파견한 미국이다. 호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주둔미군에 찬성하는 반면, 반대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52%가 주호주미군에 반대하며 46%가 이에 찬성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6] 주호주미군에 대한 인식

아태지역 양자관계에 대한 인식

아태지역의 양자관계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다. 미국이 역내 견고한 동맹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그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각종 이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구조 내에서도 또 다른 대립구도(한국과 일본)가 존재한다. 이렇듯 안보, 경제, 역사 문제에서 경쟁적 역학관계에 결부되어 있는 아태지역은 하나의 틀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정책적 제언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역내 양자 관계에 대한 여론은 이처럼 복잡한 아태 지역 내 역학 관계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 지 살펴보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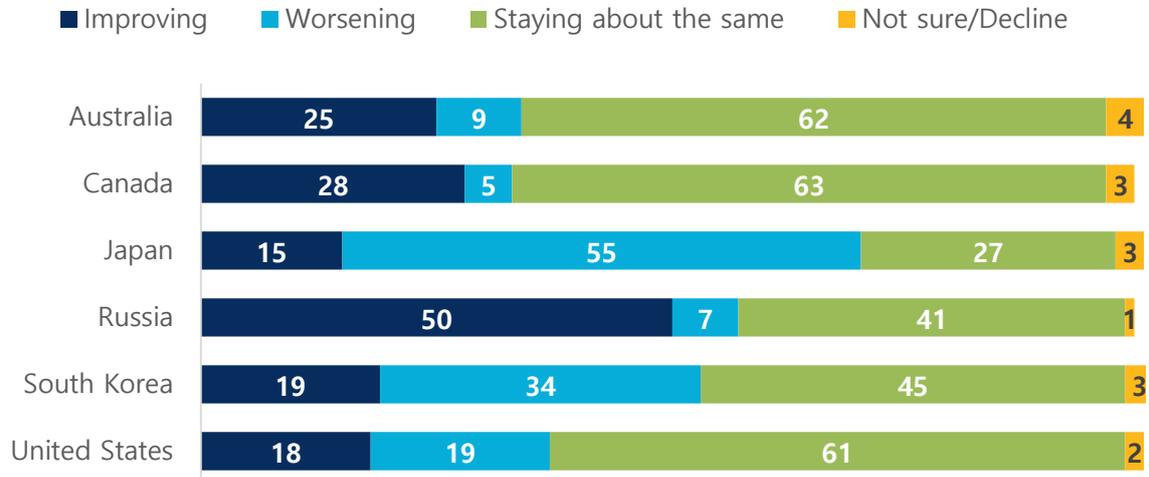
지금까지 중국 국민들이 역내 양자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의 문제는 역내 대중들의 이해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었다. 중국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주변국뿐 아니라 아태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서방 세계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온도계 측정 단위로 값을 매겼을 때, 중국 국민들은 러시아(71°), 미국(67°), 호주(64°), 캐나다(64°), 한국(55°), 북한(55°)의 순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으나, 일본(47°)에는 비교적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 국민들의 양자관계에 대한 인식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를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과 함께, 중국 응답자 절반(50%) 가량이 중러관계는 개선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는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우호적인 평가였다. 이와 유사하게, 해당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과 양자관계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캐나다(63%), 호주(62%), 미국(61%)과 중국과의 양자관계는 현상유지 단계에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대한 중국 여론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45%는 한중관계가 현상유지를 꾀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34%는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응답자의 55%가 중일관계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국의 양자관계

중국: 다음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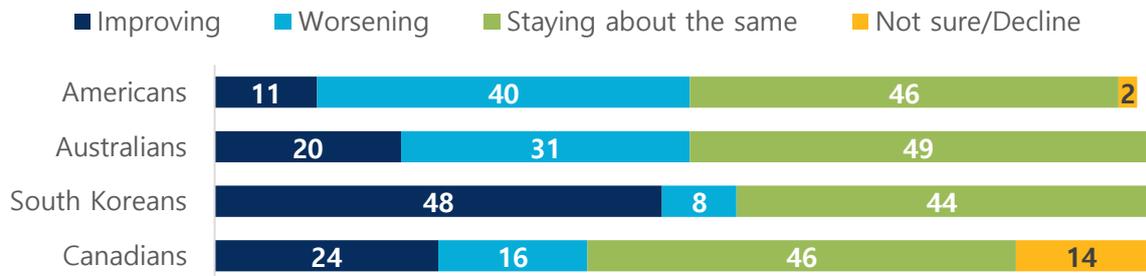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그림 7] 중국의 양자관계에 대한 인식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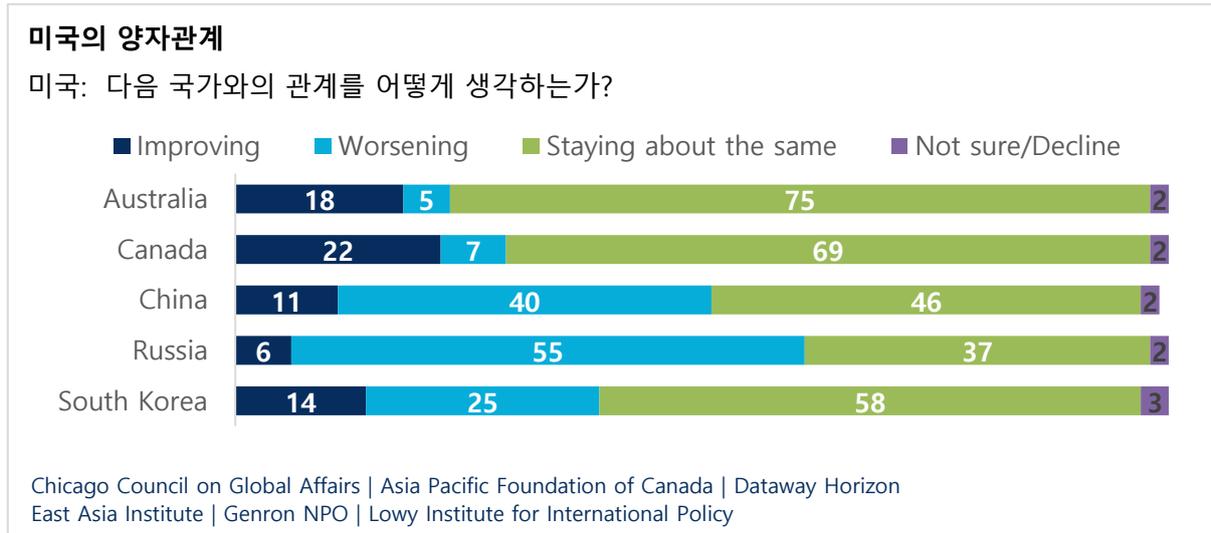
[그림 8]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미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81°), 호주(77°), 일본(63°), 한국(55°) 순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44°)과 러시아(44°)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북한(16°)에 대해서는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역내 안정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대부분 유사하게, 미국인들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 및 캐나다와의 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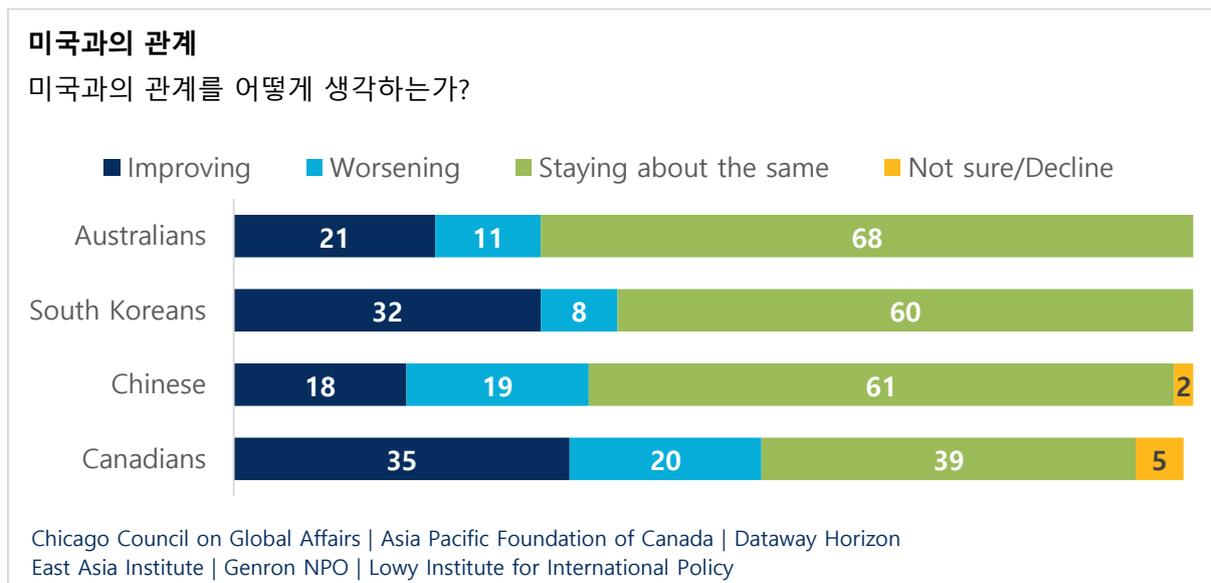


보면, 미국과의 양자관계에 있어 갈등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양자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종종 대중들이 양자관계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도 한다. 미국-캐나다, 그리고 미국-호주 관계에 대하여 현상유지 단계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69%, 75%이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대략 응답자의 4분의 3 가량이 한미관계를 현상유지 혹은 개선 중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여론이 극단적임을 알 수 있다. 46%는 미중관계를 현상유지로 평가하였으나 40%는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미러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응답자의 55%가 미러관계는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9] 미국의 양자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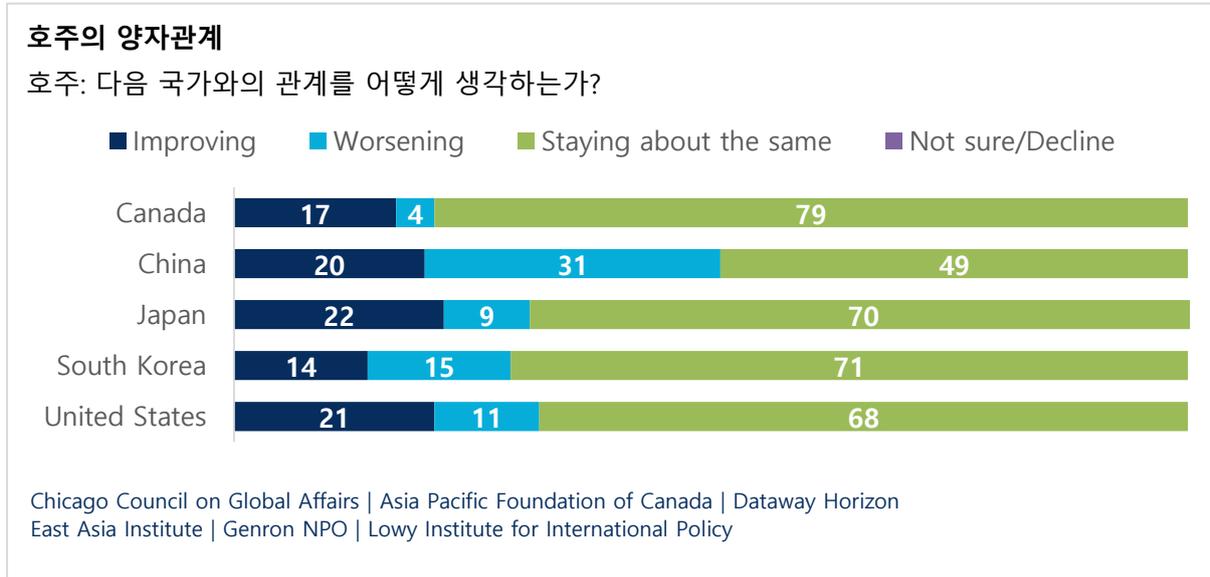
미국 국민들이 아태지역 국가와 미국 간의 양자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듯, 타 국가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호주(68%), 중국(61%), 대한민국(60%), 캐나다(39%) 국민들은 자국과 미국 간 관계가 현상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10]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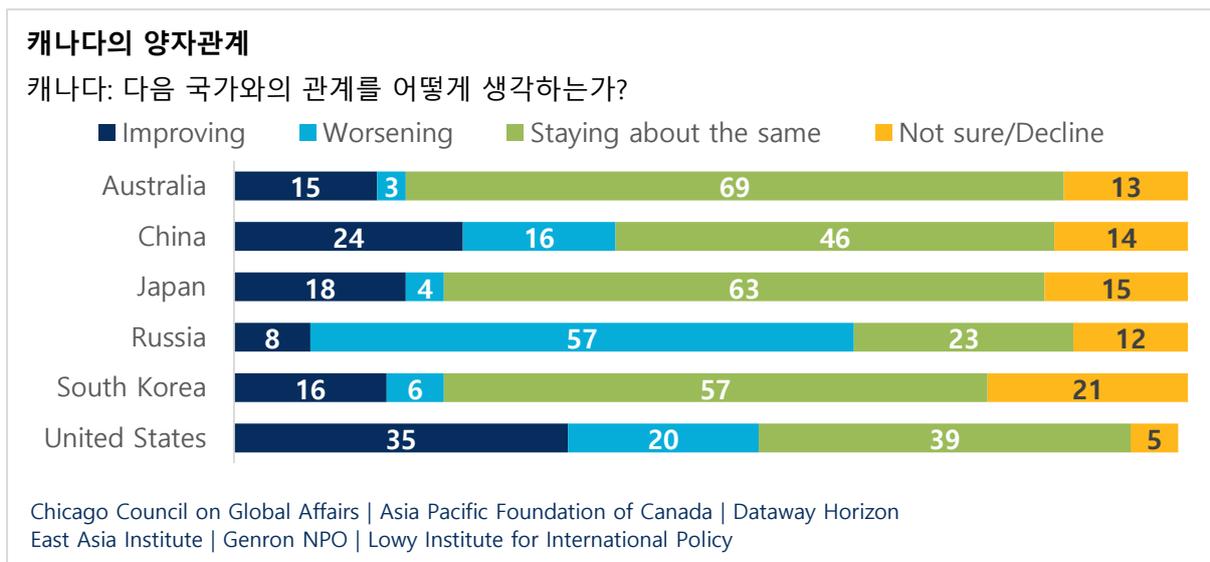


호주 국민들도 대다수 아태국가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캐나다(85%), 일본(70%), 미국(68%), 한국(59%), 러시아(52%) 순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북한(26%)에 대해서는 매우 냉소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호주 국민들은 상기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태 국가와의 관계를 현상유지로 평가하였고, 호주-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약 30%, 안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약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호주의 양자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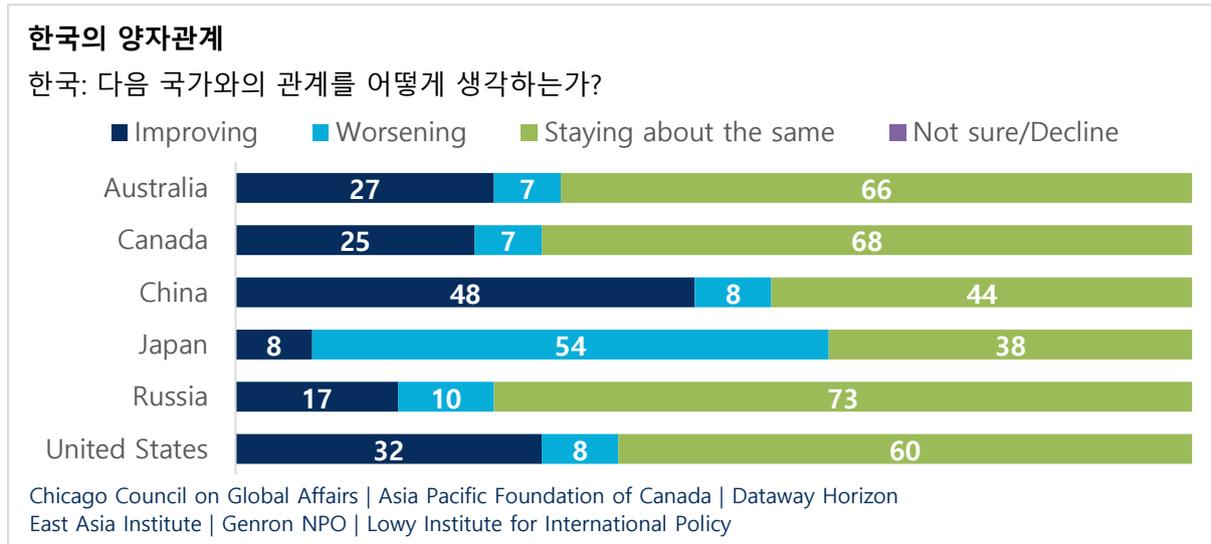
캐나다 국민들 또한 아태 국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캐나다와 아태 국가들 간의 양자관계를 현상유지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호주(69%), 일본(63%), 한국(57%), 중국(46%)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국-캐나다 관계에 대해서는 39%가 안정적이라 평가한 반면 35%가 관계개선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로써 미국에 대한 인식은 다소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캐나다-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57%가 관계악화로 평가하였고, 관계개선을 응답한 비율은 미미하였다.



[그림 12] 캐나다의 양자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의 경우 역내 양자 관계에 있어 유일하게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는 국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일 간 공식적 양자 관계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인 응답자 과반수 이상(54%)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인 응답자의 상당수는 일본 외 국가와는 관계가 호전되고 있거나 현상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관점은 온도계 측정 단위로 평가한 타국에 대한 우호도 조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한국인들은 미국(73°)과 중국(60°)에는 우호적인 반면, 중국(60°), 러시아(43°), 북한(28°)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림 13] 한국의 양자관계에 대한 인식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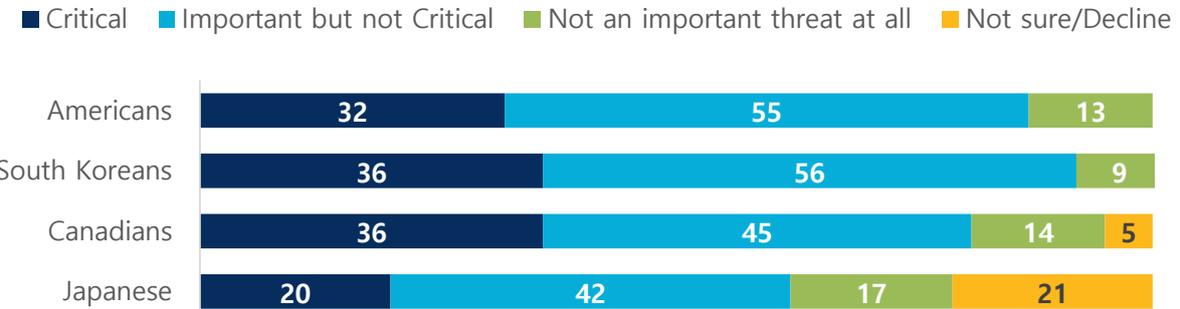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는 안보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연루된 영토 분쟁을 고려할 때, 아태 지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역내 여론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가?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늘 일촉즉발의 위협을 안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 및 한반도 내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어느 국가에도 결정적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는 듯 하였다. 남한에서조차 36%의 응답자만 남북한 대치를 결정적 위협이라 평가하였고, 이는 캐나다(36%), 미국(32%)의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잠재적 위협: 남북한의 대립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 향후 10년 안에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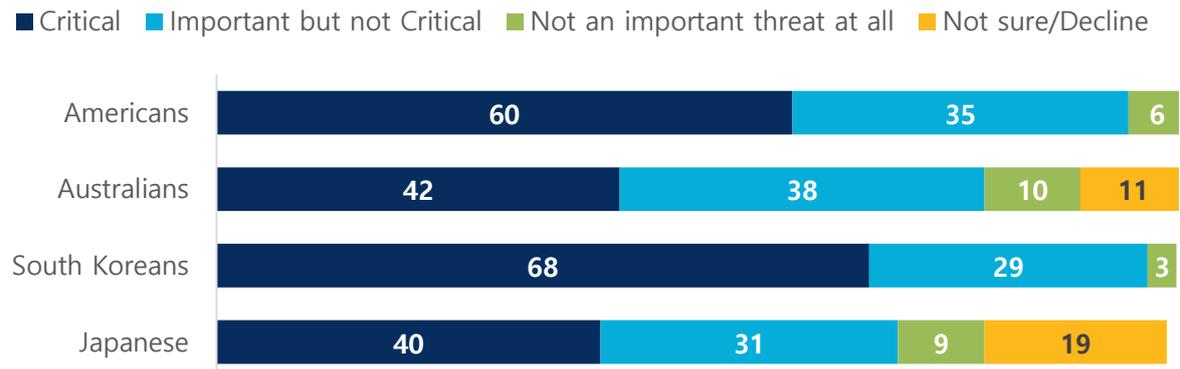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그림 14] 잠재적 위협: 남북한의 대립에 대한 인식

하지만 북한과 관련하여 역내 국가들의 위협 인식을 야기하는 이슈가 존재한다. 즉 규모는 작지만 충분히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핵 문제가 그것인데, 한국(68%)과 미국(60%)은 북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국가들 역시 대다수가 이를 결정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호주는 42%의 비율로 북핵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우려하는 것 같았지만, 이 문제를 호주가 직면한 5대 위협 중 하나로 꼽는 등 전반적 국가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 위협: 북한 핵 프로그램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향후 10년 안에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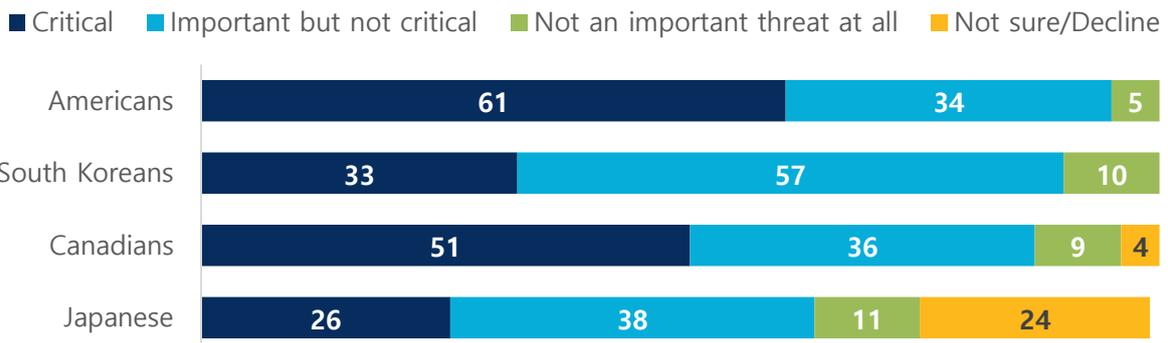
[그림 15] 잠재적 위협: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핵과 관련하여 보다 보편적인 이슈로는 핵 확산을 들 수 있다. 비우호적 국가들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게 결정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국은 61%, 캐나다는 51% 순으로 핵확산을 위협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한국(57%)은 이를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으나 결정적 위협으로까지는 인식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 핵 확산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한국과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가 북한에 국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잠재적 위협: 비우호적 국가의 핵 보유

비우호적 국가의 핵 보유가 향후 10년 안에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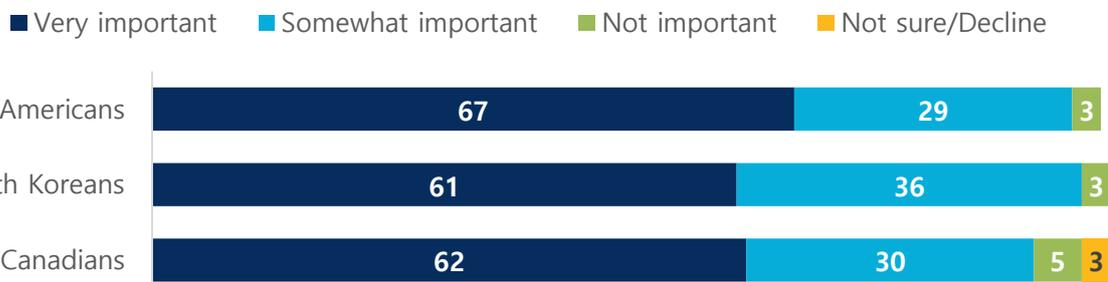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그림 16] 잠재적 위협: 비우호적 국가의 핵 보유에 대한 인식

이미 핵 위협에 직면한 아태지역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 결과 해당 국가들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평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각 국가에서 약 60%가 핵무기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약 30%는 다소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응답하였다.

정책 목표: 핵무기 확산 방지

국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 테러 퇴치 외교정책 목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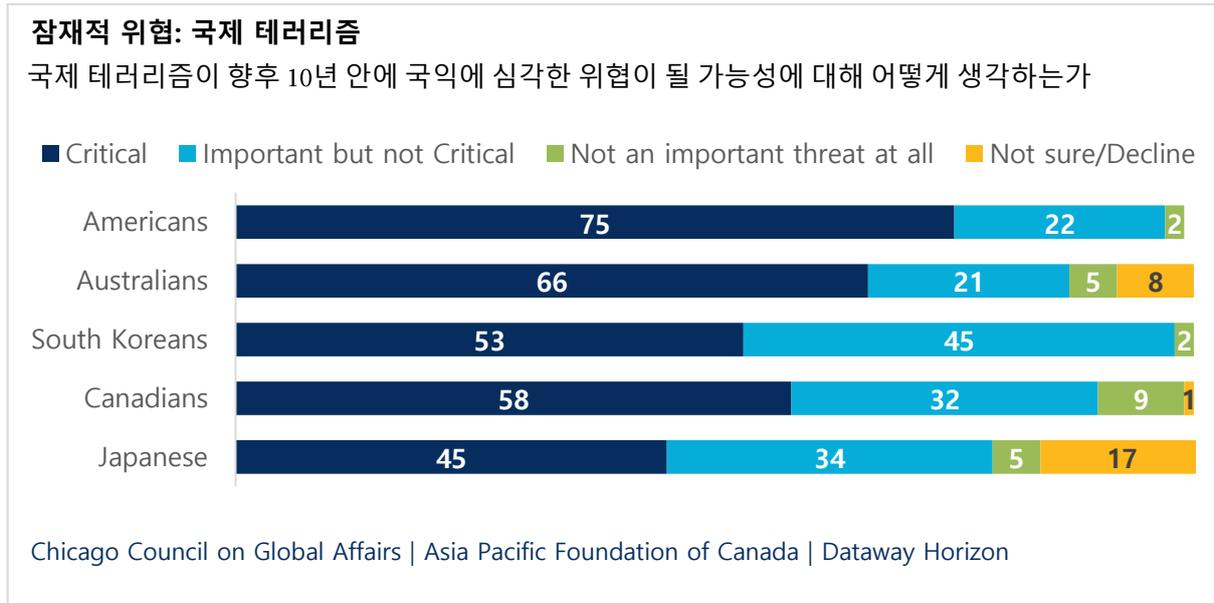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그림 17] 정책 목표: 핵무기 확산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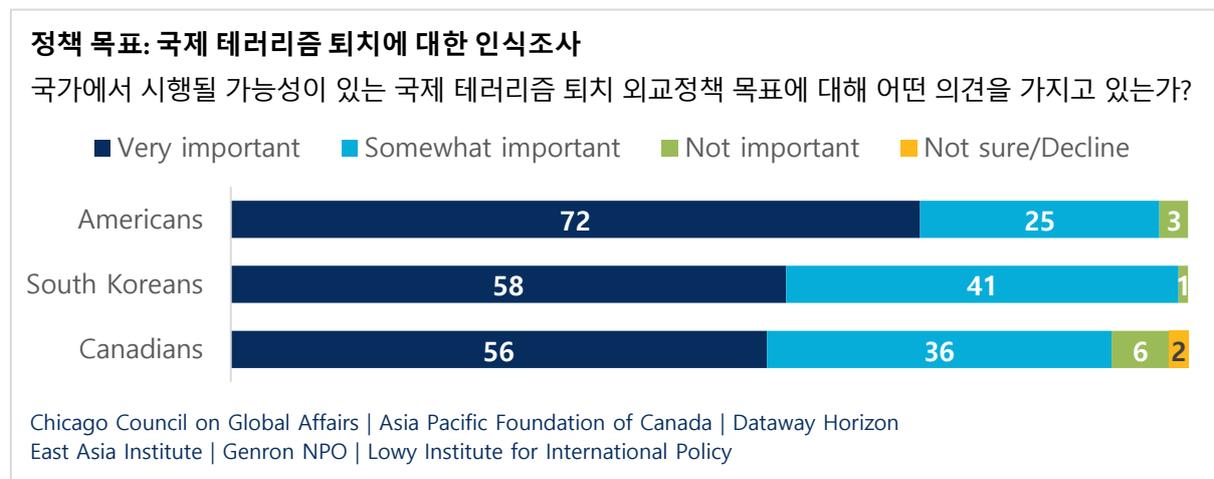


하지만, 역내 국가들이 인식하는 가장 중대한 위협은 아태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아태지역이 직면한 잠재적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역내 국가들은 테러리즘을 결정적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가 직면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다. 테러리즘을 결정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미국(75%), 호주(66%), 캐나다(58%), 한국(53%), 그리고 일본(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민들은 자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테러리즘을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테러리즘이 심각한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모든 국가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잠재적 위협: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

역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테러리즘을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모두 테러리즘 예방 및 근절을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를 매우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꼽은 국가는 미국(72%), 한국(58%), 그리고 캐나다(5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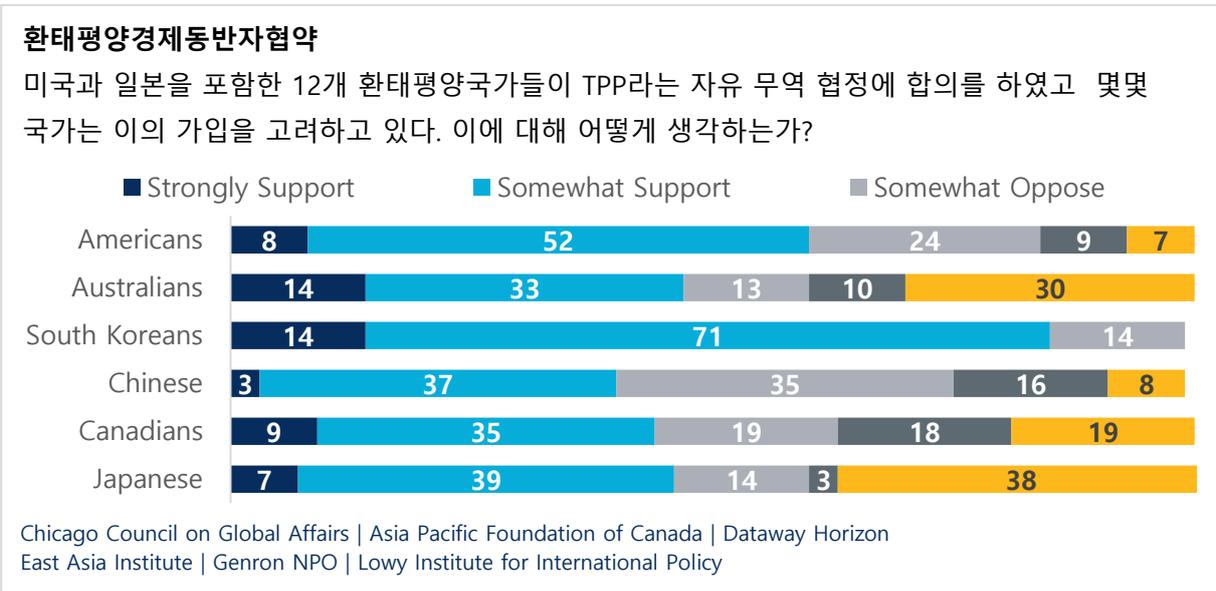
[그림 19] 정책 목표: 국제 테러리즘 퇴치에 대한 인식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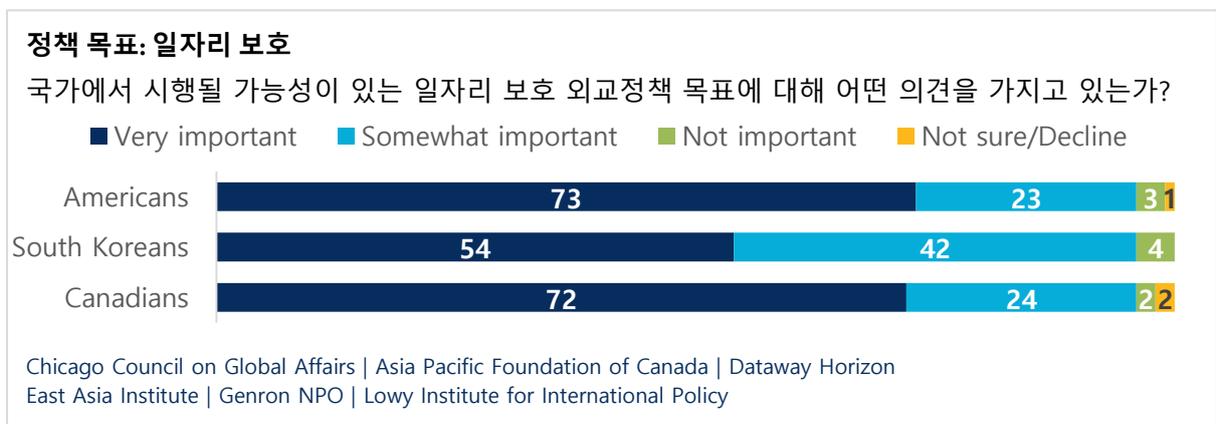
안보 문제는 아태지역 정책 논의에서 항상 상위를 차지하는 이슈이다. 안보 문제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이민, 국내 일자리 보호, 금융위기,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아태지역에서 논의되던 지역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이다. 하지만 두 핵심 행위자인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각각 44%, 47%만이 TPP를 지지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TPP의 설립국인 미국은 60%의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한국과 중국은 각각 85%와 40%의 지지를 표시한 바 있다.



[그림 20]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인식

상당수 국가에서 무역협정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들에게 우선순위는 국내 노동자 일자리 보호이다. 미국(73%)과 캐나다(72%)에서 모두 70% 이상의 비율로 국내 일자리 보호를 시급한 외교정책 목표라고 답하였고, 한국 역시 54%의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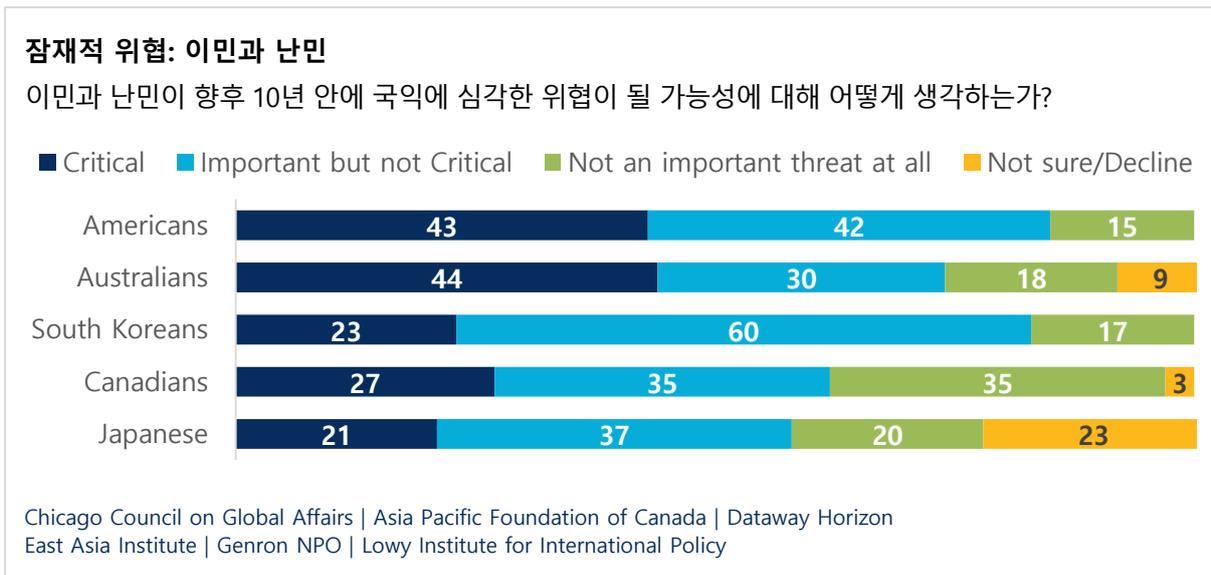


[그림 21] 정책 목표: 일자리 보호에 대한 인식



‘일자리 보호’라는 수사는 종종 이민정책, 그리고 다양한 학력과 기술 수준을 지닌 이민자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문제와 결부되어 등장한다.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민 문제는 역사적으로 인구 성장 및 구성 비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민과 관련하여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캐나다는 이민 문제가 자국이 직면한 결정적 위협이라 생각하지 않는 반면(27%만이 이민이 결정적 위협이라고 응답하였다), 호주와 미국에서는 이민에 대해 보다 우려가 담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즉, 호주와 미국은 모두 이민이 자국에 결정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에게 이민 문제는 다소 생소한 이슈인 동시에, 한국으로 이민 오는 비율도 증가세에 있지만 여전히 낮다. 2016년 한국 응답자 중 20%만이 이민을 결정적 위협이라 평가하였지만 이는 앞으로 이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도 이민을 결정적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잠재적 위협: 이민과 난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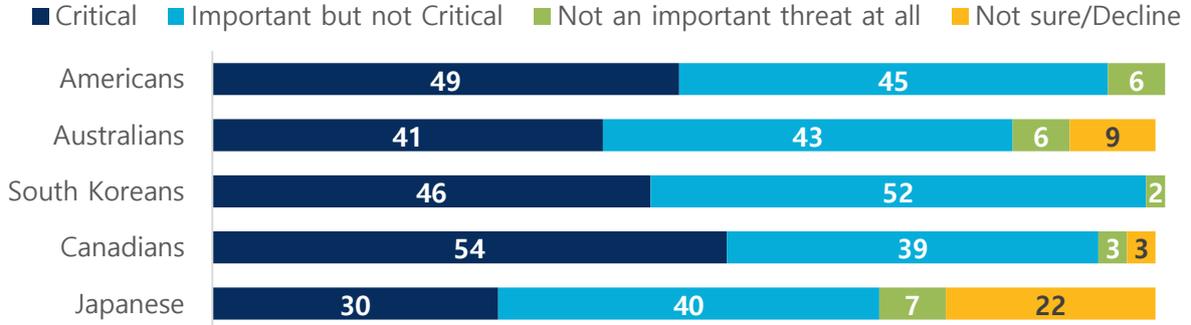
이민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민자들이 국내 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지도 모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자리 보호가 대중 인식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일자리 보호가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이슈임을 시사한다.

물론 국내 노동자들이 직면한 유일한 위협 요소는 이민뿐만이 아닐 것이다. 경제불황이야말로 일자리 보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위협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8년이 지났으나 또 다른 금융위기가 아태지역을 덮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설문조사에서 개별 국가별로 약 40% 이상이 국익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요소로 금융위기를 꼽았으며, 캐나다에서는 그 비율이 54%에 달하였다.



잠재적 위협: 국제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가 향후 10년 안에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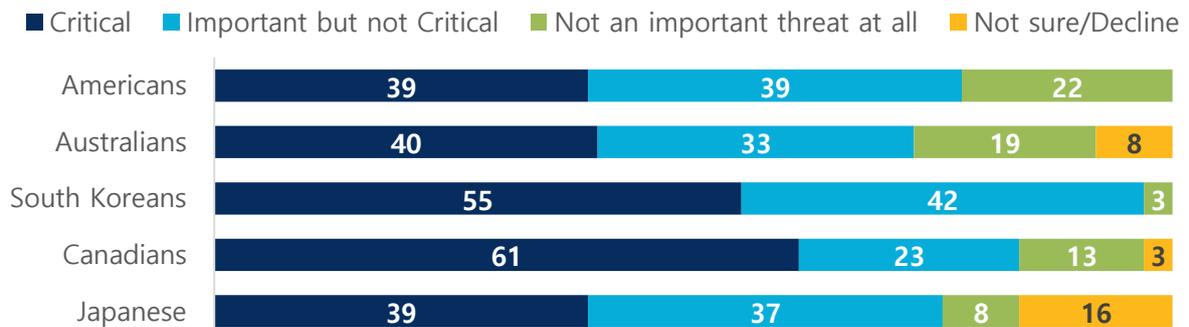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그림 23] 잠재적 위협: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인식

끝으로,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 위협 요소이며, 개별 국가를 놓고 보더라도 기후변화는 ‘중요한’ 또는 그 보다 한 단계 격상된 ‘결정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와 한국 국민 대부분은 기후변화를 결정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반면, 호주와 미국 국민들은 40%의 비율로 이와 같은 견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위협: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향후 10년 안에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그림 24] 잠재적 위협: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결론

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을 양 스펙트럼에 둔, 복잡한 양자관계의 집합체이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오늘날 국제질서를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 국민들은 자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일방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중국 국민들이 타국에 지니고 있는 우호적인 감정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역내 다른 국가들 간의 양자관계는 한일관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일관계는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이다.

중국의 부상은 아태지역 내에서 중요한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게 경종을 울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결정적 위협으로 보는 견해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호주가 주둔 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할 만한 군사력 및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는 이슈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상 국가들은 공통의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교집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호주, 한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테러리즘을 자국이 직면한 결정적 위협 요소로 꼽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기타 위협 요소로는 북핵 문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 등이 있다. 한국, 캐나다, 일본 국민들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를 자국이 직면한 위협 요소로 꼽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상호협력과 외교관계에 긍정적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 아직 일부 국가들의 외교관계에 우려의 시각도 분명 존재하지만, 역내 국가들이 여러 현안에 대한 공통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아태지역 협력을 도모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조사방법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 - 미국

이번 보고서는 2016년 CCGA가 실시한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장조사기관인 GfK가 전국 규모의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을 이용하여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 2,06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016년 6월10일~6월27일까지 실시되었다. 오차범위는 $\pm 2.38\%$ 며,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캐나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 여론조사는 EKOS 리서치에 의해 프로빗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여자인 3,526명의 성인 대상으로 2016년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시행되었다. 오차범위는 $\pm 1.6\%$ 이며, 잠재적 위협 및 정책 목표 질문에 대한 오차범위는 $\pm 2.3\%$ 이다. 샘플이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에 Statist Canada 현황 데이터에 근거하여 나이, 성, 지역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Dataway Horizon - 중국

Dataway Horizon은 2016년 9월 5일~9월 13일 간 18세 이상 15개 주요 도시 주민 1,52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단계 프로세스(multistep process)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면대면 면접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오차범위는 $\pm 2.5\%p$ 이다.

동아시아연구원 (East Asia Institute: EAI) - 한국

EAI의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16~7월 5일 간 한국리서치에 의해 19세 이상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문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면대면 면접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오차범위는 $\pm 3.1\%$ 이다.

言論 NPO - 일본

NPO의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18일~7월 3일, 8월 20일~9월 4일 간 18세 이상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인구통계자료를 기초로 일본 50개 지역을 선택해 각 지역에서 2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직접 전달 후 며칠 후에 회수하는 방문유치회수법을 사용했다.

Lowy Institute -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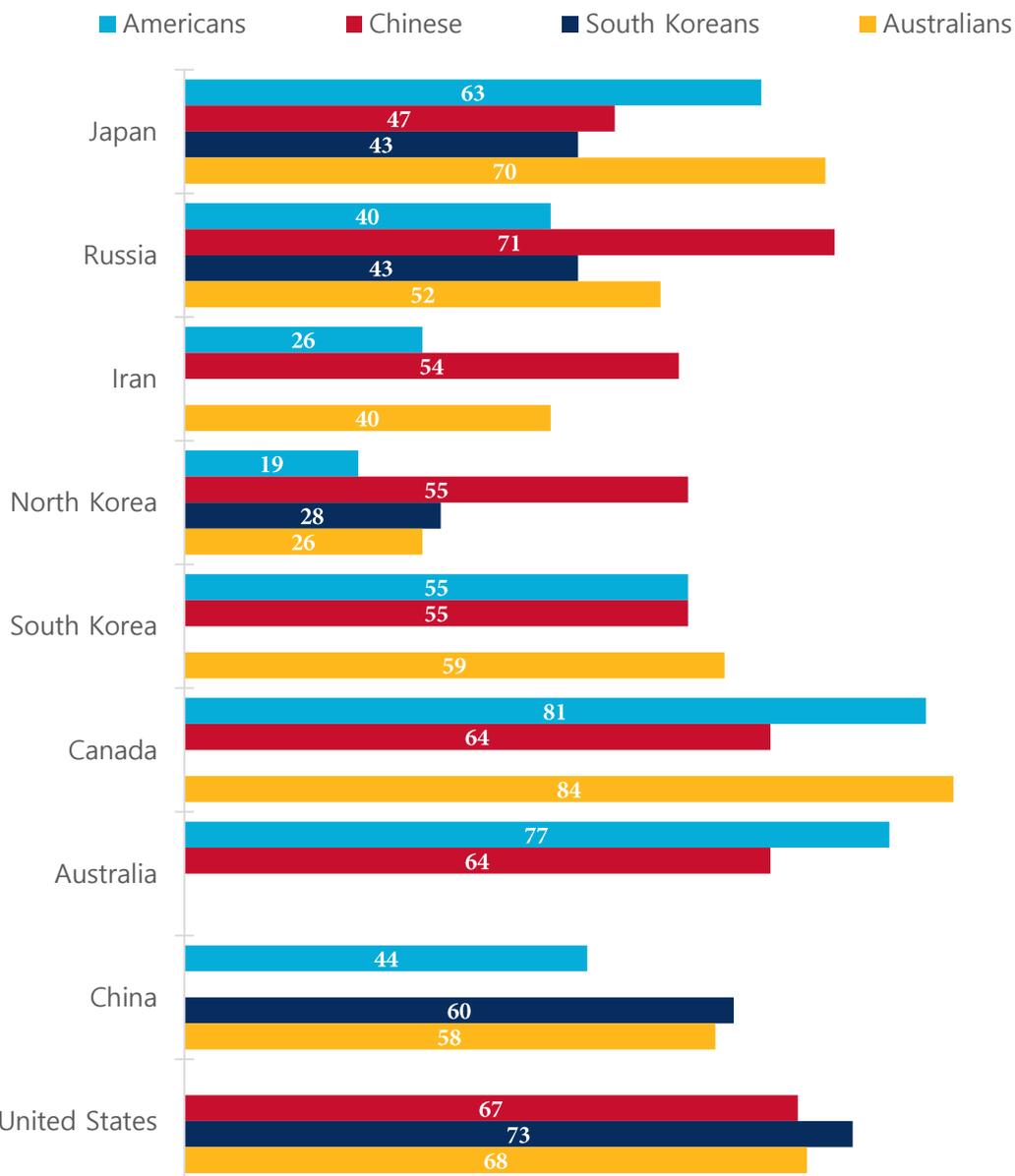
호주의 여론조사는 2016년 7월 14~19일 간 Omnipoll research와 Lightspeed Research에 의해 18세 이상 1,22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는 Australian Bureau of Stastics 데이터에 근거하여 나이, 학력, 성, 지역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오차범위는 $\pm 3.2\%$ 이다.



부 록

타국가에 대한 감정 온도

보기엔 있는 나라와 국민에 대해 귀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저 그렇다'인 50을 기준으로 '매우 우호적'인 경우에는 100, '매우 적대적'인 경우에는 0입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을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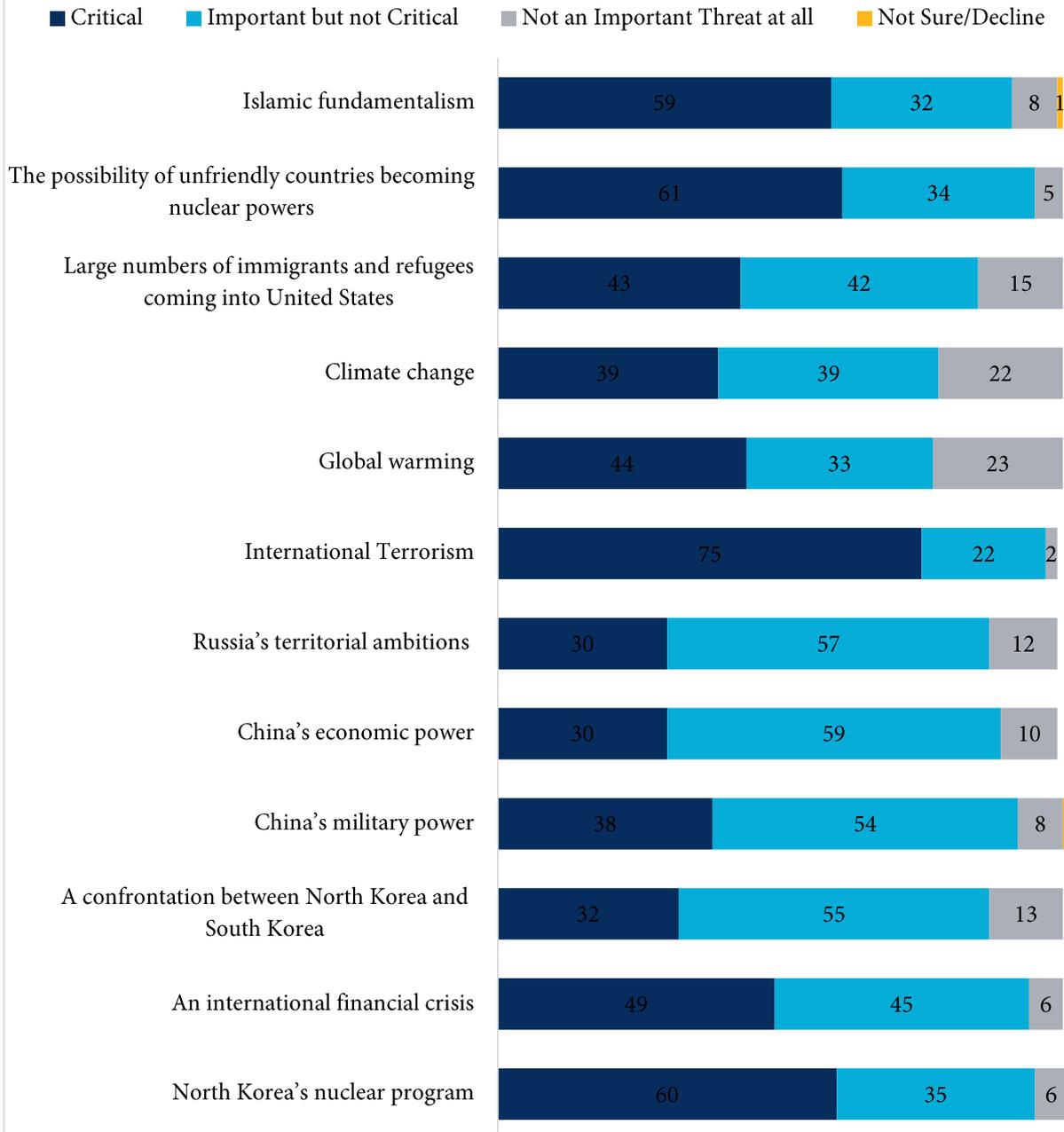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부록 그림 1] 타국가에 대한 감정 온도



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

다음은 향후 10년 안에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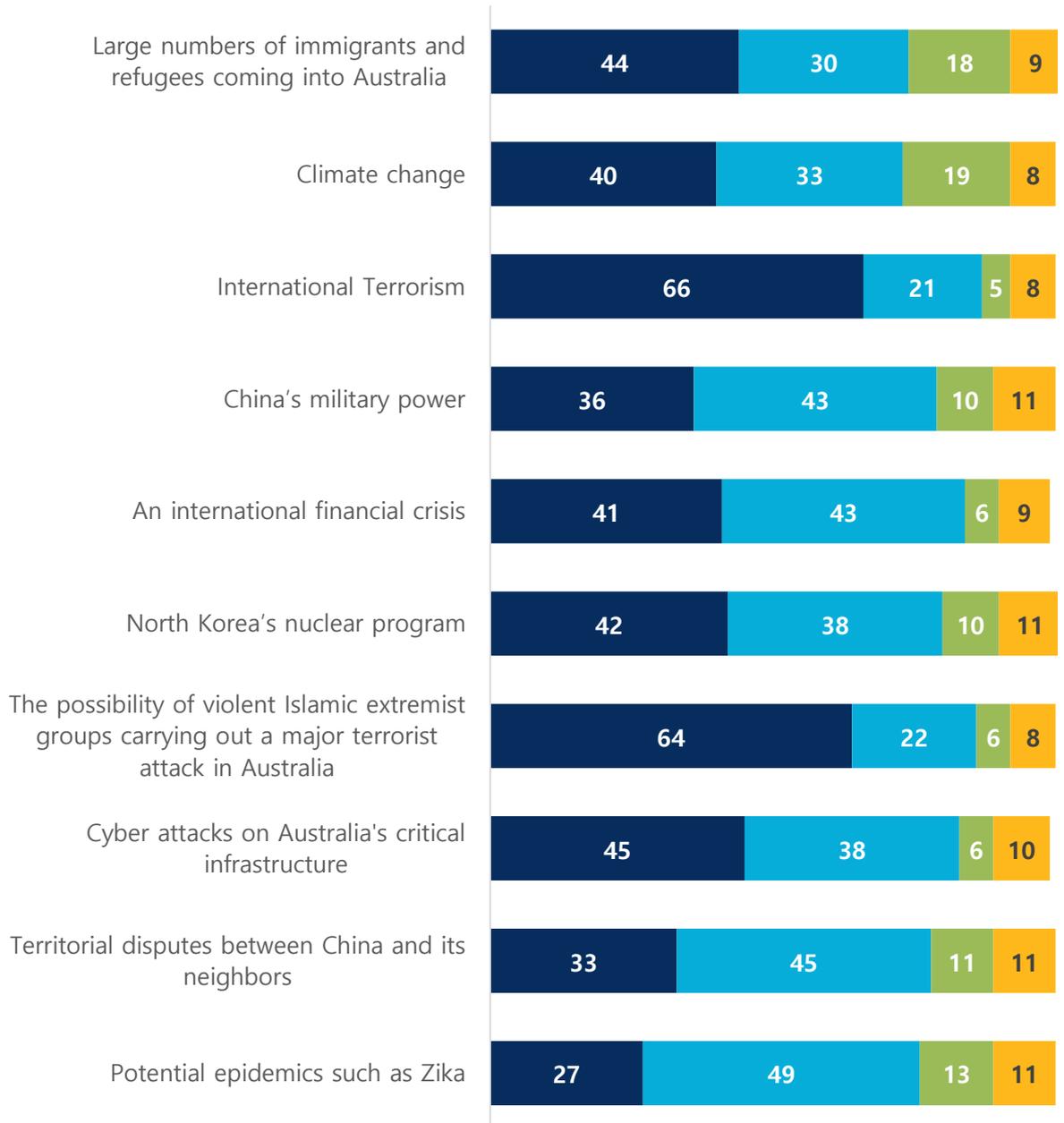
[부록 그림 2] 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



잠재적 위협에 대한 호주 국민의 인식

다음은 향후 10년 안에 호주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Critical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Not an Important Threat at all ■ Not Sure/Dec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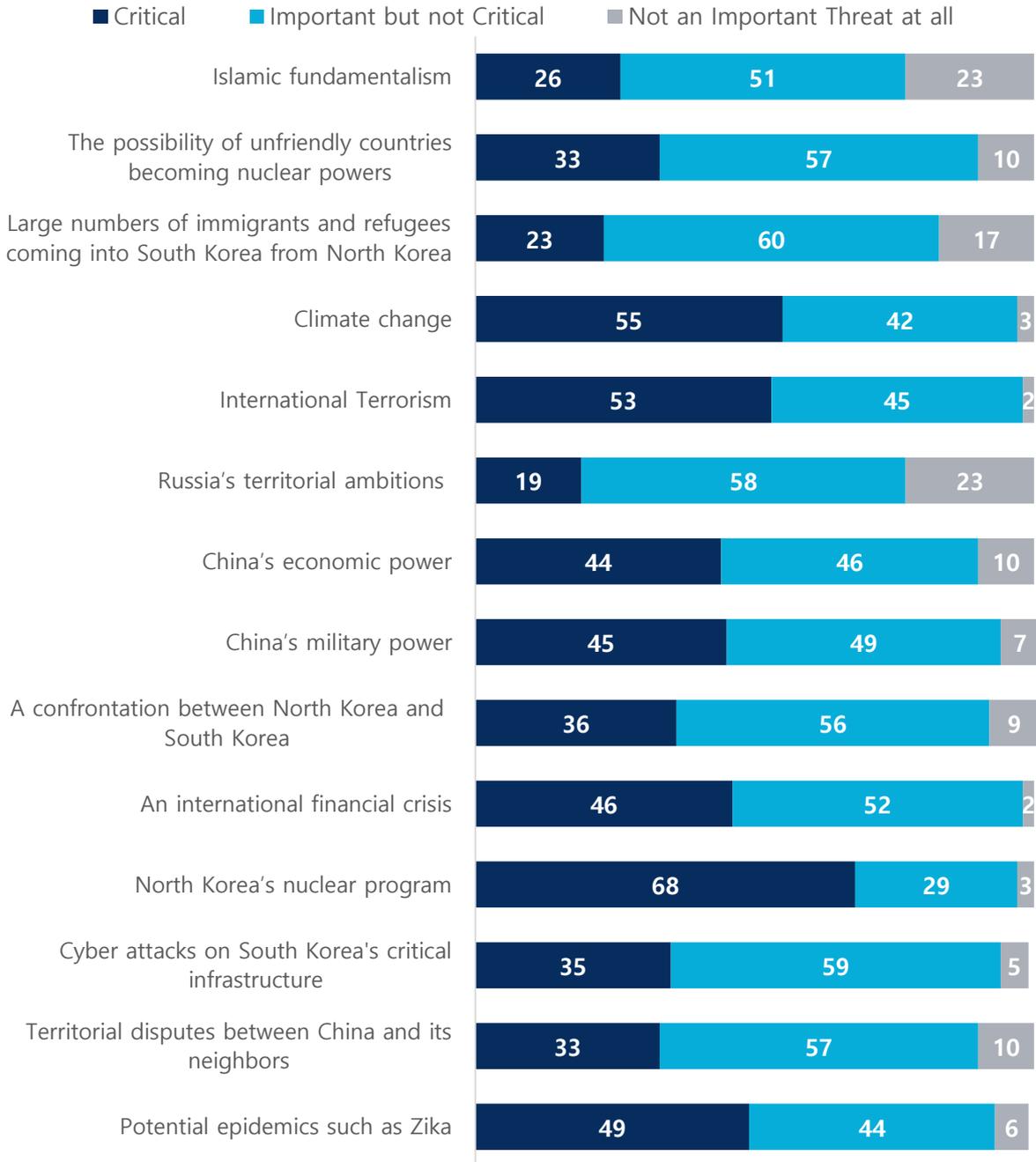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부록 그림 3] 잠재적 위협에 대한 호주 국민의 인식



잠재적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다음은 향후 10년 안에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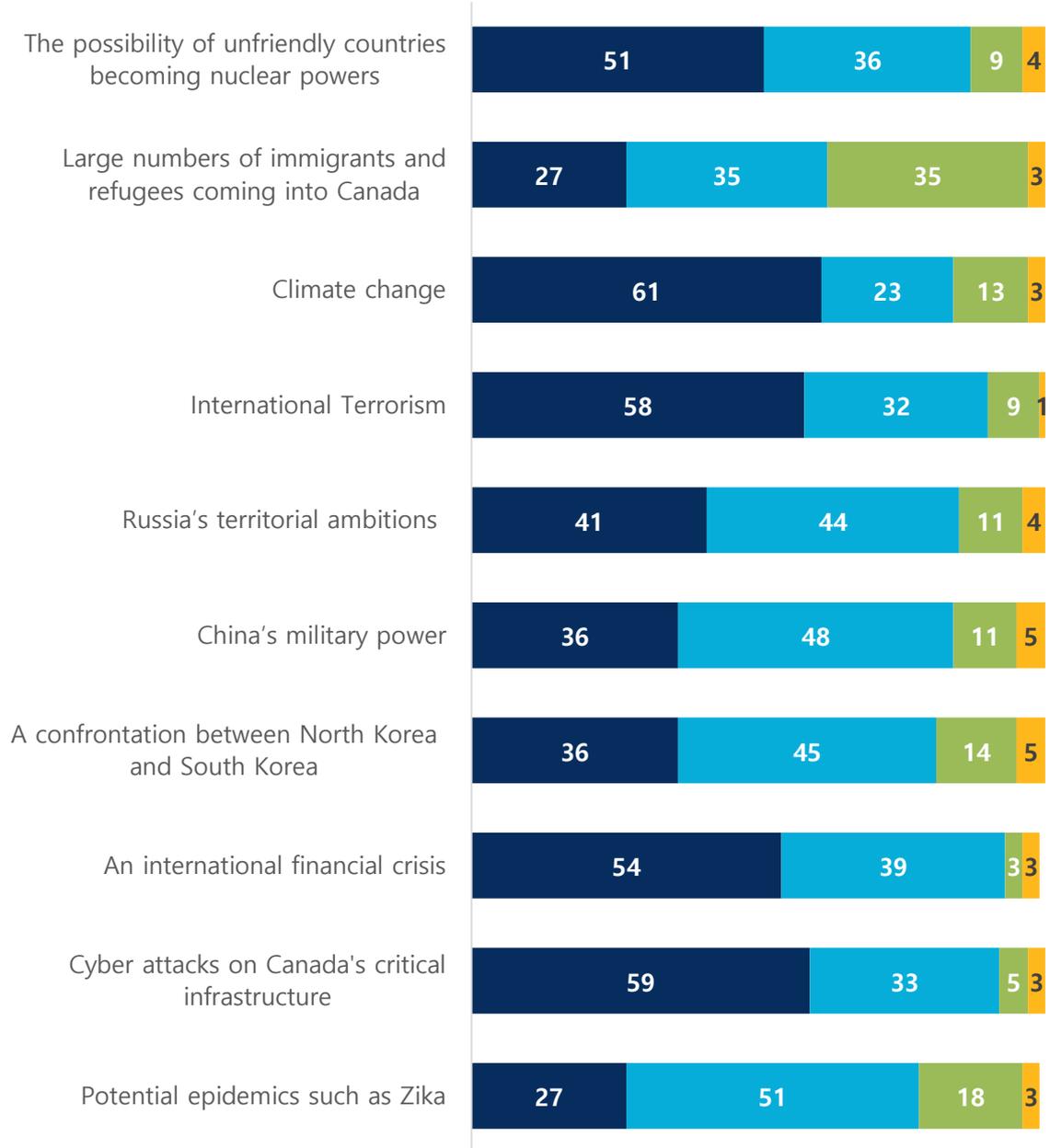
[부록 그림 4] 잠재적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잠재적 위협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인식

다음은 향후 10년 안에 캐나다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Critical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Not an Important Threat at all ■ Not Sure/Dec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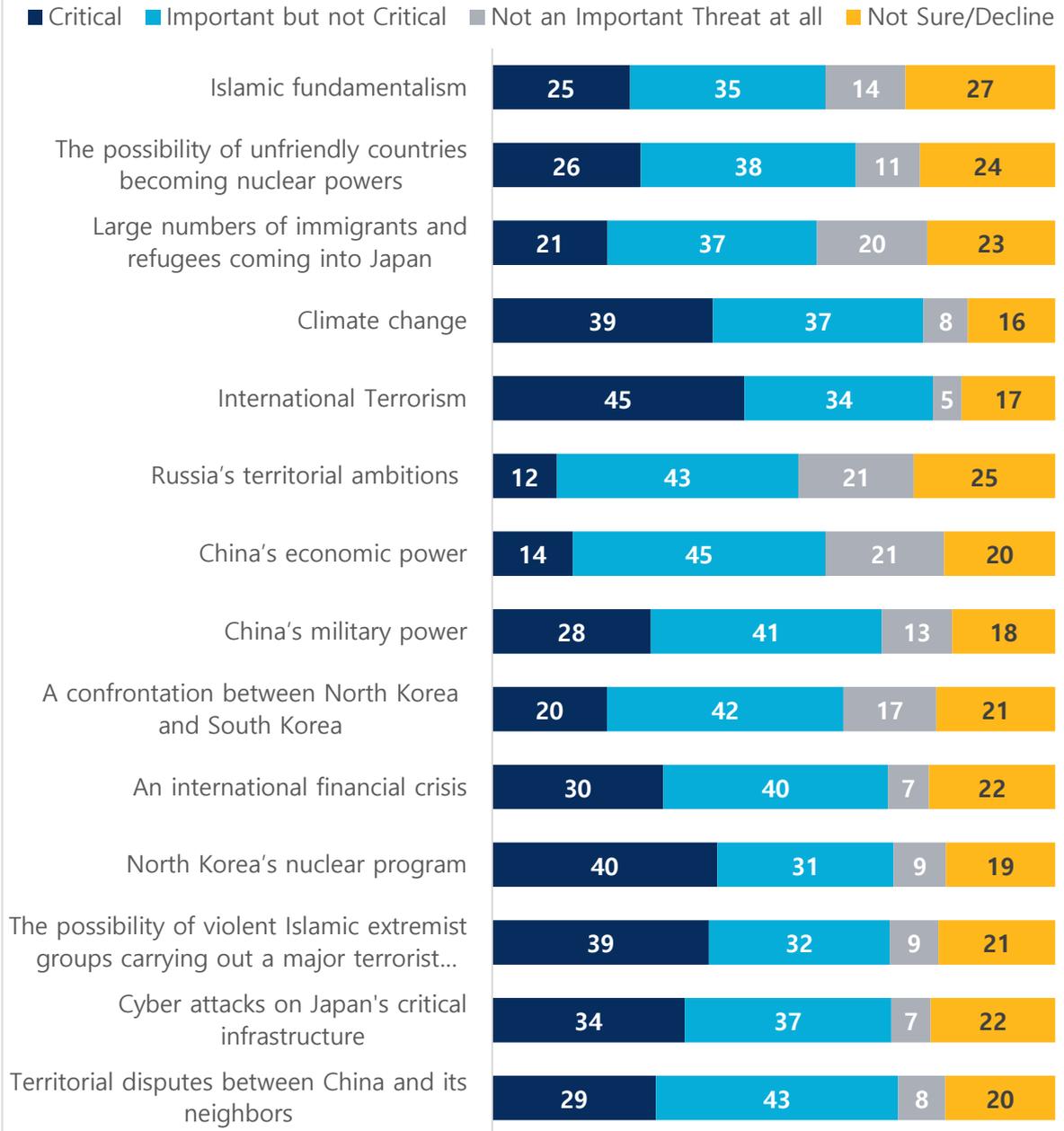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부록 그림 5] 잠재적 위협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인식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

다음은 향후 10년 안에 일본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Dataway Horizon East Asia Institute | Genron NPO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부록 그림 6]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

